부산불교계, 봉축 '자비 나눔'으로 회향

릴레이 약사기도와 소외계층 돕기 진행

5월 16일 연등축제 회향식
릴레이 약사여래 기도 및
상품권 구매캠페인 진행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연등축제 회향식에서 스님들이 의료진 후원금을 보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부산연등축제가 막을 내렸다. 부산불교계는 회향과 함께 자비 나눔을 실천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더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회장 경선 · 이하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5월 16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자유회관에서 '불기 2565년 부산연등축제 및 릴레이 기도정진' 회향식을 봉행했다.

회향식은 총 3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불교TV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과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진행하는 국운융창 영산재, 관불의식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삼귀의 및 입정, 약사여래 기도문 봉독과 정근, 발원문 낭독 등 코로나19 극복의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봉행사와 함께 부산불교대상 시상식 및 자비 나눔 행사, 봉축법회 등이 진행됐다.

회향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연합회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 진광정사 등 연합회 스님들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설동근 고문, 박형준 부산시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번 회향식에서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연등축제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캠페인을 진행했다.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약정도 함께 진행, 총 60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날 부산연등축제조직위는 제3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불교 발전과 중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치하했다.

대상에는 김수현 불교TV 부산지사장, 최우수상은 범어사 금강암 장학회, 우수상에 강미자 금정총림포교사회 회장, 삼광사 봉사회, 현익채 전 금정중학교 교장, 공로패는 주영미 법보신문 기자가 수상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연등축제서 밝힌 수많은 등은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찬탄의 공양이자, 과거부터 이어 온 부처님의 밝은 광명의 가르침을 의미한다"며 "연등축제의 장엄한 등은 현재의 시간 뿐 아니라 과거를 품고, 미래를 밝힐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법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는 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연등축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동참자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호명하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박 회장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의 정성과 노력이 모여 회향식까지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며 "힘든 시기에 우리의 기도와 발원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치유를 안겨주는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부산불교대상 수상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불교 중흥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달했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는 5월 17일 부산의료원을 방문해, 느티떡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의료진을 응원했다. 위문품은 1000만 원 상당으로 코로나 극복 릴레이 기도 당시 참여한 종단, 연합회 등 스님들과 신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동화사, 대구시립합창단 종교편향 항의

대구시 측 사후방지 약속

대구 동화사가 5월 14일 대구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기획연주에 항의, 대구시의회를 방문했다.

동화사 국장단과 장세철 신도회장 등 대표 10여 명은 14일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 지적과 함께 대구시장 공식사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합창지휘자 문책 등을 요청했다.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시립합창단 연주는 4월 29일 진행된 시립합창단 40주년 기념 및 정기연주와 5월 13일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행복 나눔콘서트' 등이다.

동화사 측은 "오페라 합창 가사에서 '찬양하세' '교회에 기도하러가세'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찬송으로 경배 드리세' 등 가사 반복이 문제"라며 "특히 5월 18일 같은 내용으로 예정된 공연 등 부처님오신날 즈음 이 같은 공연을 진행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동화사는 "대구시립합창단은 대구시민 정서에 맞는 합창단이어야 한다. 종교편향이 없는 시립단체인지 의문스럽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화사 측의 항의에 관한 담당자인 박희준 대구시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시는 2014년부터 공연준비위 심의를 거쳤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이 과정이 생략됐다. 대구시립합창단 편향공연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불교계서 요구하는 대구시장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강구, 지휘자 문책 등을 보고 후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리말 반야심경 읽으며 신심 고취를"

관음사, 5월 16일 어린이 한글반야심경 독경대회 개최



관음사(회주 지현)는 5월16일 원통보전에서 '우리말 반야심경 독경대회'를 실시했다.

'우리말 반야심경 독경대회'는 관음사 어린이 및 청소년 법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처님오신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회로 마련됐다.

이번 독경대회는 사경대회 및 독경대회 예심 통과 20여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각자 갈고 닦은 우리말 반야심경 독경 실력을 뽐냈다.

지현 스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향기로운 연꽃이며 태양보다 더 빛나는 보석이다. 꽃이 시들지 않고 보석이 때 묻지 않도록 물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이 스님들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독경대회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불자로서 자라나 달라"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독경대회에 앞서 어린이와 자모회는 스승의날 행사로 스님들에게 꽃을 전달했다. 아울러 '스승의날'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세상을향기롭게 코로나19 성금 전달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는 5월 14일 부산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세상을향기롭게는 전달식에서 1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후원금은 부산광역시를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 상임이사 정오 스님, 이사 도명 스님, 보혜 스님,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참했다.

(사)세상을향기롭게는 "경제 회복을 위해 우리 불교계가 함께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불상, 통도사 봉안되다

한-인 국제문화교류 물꼬
5월 16일 불상 봉불식 봉행


통도사는 5월 16일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당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불상 봉불식'을 개최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 인도에서 온 불상이 봉안됐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5월 16일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당에서 '한국 · 인도 국제문화교류 불상 봉불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고불문 낭독 △경과보고 △코로나19 방역기금 전달식 △환영사 △인사말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통도사는 이번 봉불식에서 인도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물품 지원도 진행했다. 통도사는 코로나 극복성금 3000만 원, 마스크 30만 장을 기부했다. 마스크는 (주)블루인더스가 협찬했다.

방장 성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법망은 촘촘한 법망으로 고해에 시달리는 중생을 구하겠다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뜻이 담겨 있다"며 "이번 계기를 맞아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으로 자신 속의 부처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허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가야로 왔다는 내용을 통해 한국과 인도는 연결돼 있고 심리적으로 마음의 거리는 가깝다"며 "부처님 봉안을 계기로 국제교류가 종교를 넘어 문화와 경제 분야로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란가나탄 인도 대사는 "인도 청동불상을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는 통도사에 모실 수 있어 큰 영광이다"며 "'인내는 행하기 어렵지만,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가 찾아온다'는 부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원했다.

한편, 봉불식에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 주지 현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 영축총림 유나 항조 스님,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노전 광우 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 총무국장 종현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소누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 김일권 양산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능인학원 개교82주년 기념식



종립 학교법인 능인학원은 5월 14일 교내 숭덕관 대강당에서 개교 8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과 직지사 박물관장 진웅 스님, 교법사 문수 스님을 비롯해 정영채 능인중학교장과 김원술 능인고등학교장, 김동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사장 도진 스님은 "우리 능인가족들은 '탓'이라는 부정적 원망과 불평보다는 '덕분'이라는 감사와 긍정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자"며 학교의 발전에 헌신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영채 능인중학장은 "일제 강점기 속에 꺼져가는 민족 정기를 살린 고승대덕 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 헌신으로 교육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 043-877-5000
FAX. 043-877-2900

